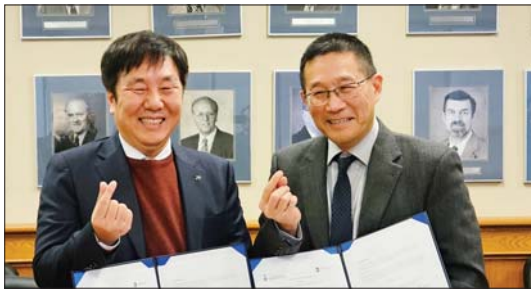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영남권 신년인사회… 600여명 참석

중기중앙회는 19일 부산광역시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영남권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와 정부·국회·지자체·유관기관 등 주요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 국회와 지자체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향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관심과 연대 의지를 보여줬다. /중기중앙회



기정원, 토론토대학 등 북미 R&D 협력 확대

기정원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미국 렌슬러공과대학과 지난 9일과 13일에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개방형 R&D 혁신 촉진한다. 김영신 기정원장(왼쪽)이 토론토대학교 Chris Yip 공과대학 학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정원



이광희 SC제일은행장,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SC제일은행은 이광희은행장(가운데)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을 추천했다. /SC제일은행



동아제약, 상주서 ‘메리 리틀 하모니’ 공연

동아제약은 지난 17일 경북 상주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 무대가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상주보육원 원생과 공검초등학교 학생 50여 명,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해 문화공연을 즐겼다. /동아제약

아모레퍼시픽

마크 브래드포드 개인전 연장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3월 1일까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국내 첫 개인전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떠오르다(Float)’ (2019), ‘폭풍이 몰려온다(Here Comes the Hurricane)’ (2025) 등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공간에 맞춰 제작된 대형 작품들을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뮤지엄샵에서 전시도록 ‘마크 브래드포드: 킵 위킹’도 만나볼 수 있다. 작가 대표작, 다양한 전시 이미지 등을 수록해 전시 감상을 돕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화그룹, 사이언스챌린지 수상자 해외탐방 마무리

율리히 연구소 등 현장 체험… 미래 ‘노벨상’ 씨앗 심어

獨 연구기관 방문… 6박 8일 일정
과학문화 저변 확대·인재발굴 기여

한화그룹은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5’ 수상자 10명이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의 우수 연구기관을 방문하며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사이언스챌린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11년 “젊은 노벨상 수상자를 양성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된 국내 최고 수준의 고등학생 대상 과학경진대회다. 지난 14년간 약 1만 8000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하며 과학문화 저변 확대와 미래 과학 인재 발굴에 기여해 왔다.

이번 해외 탐방에는 2025년도 은상 이상 수상 5개 팀, 총 10명이 참여해



한화사이언스챌린지 수상자들이 독일 율리히 연구소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그룹

대회 주제와 연계된 탐방 프로그램 속에서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해외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단일 연구기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율리히 연구소 방문을 시작으로, 막스플랑크 고분자 연구소, 다름

슈타트 공과대학교, 베를린 공과대학교, 프라운호퍼 광통신 연구소, 포츠담 천체물리학 연구소를 방문하며 글로벌 연구 현장과 학습 환경을 체험했다.

대전대신고 오정근 학생은 “지난 11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후 우주

분야에 큰 관심이 생겼는데 실제 우주와 관련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세계적 연구 인프라 체험과 연구원과의 교류를 통해 미래 진로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6’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오는 3월부터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접수가 시작된다. 총상금은 2억원으로 대상 4000만원, 금상 2팀 각 2000만원, 은상 2팀 각 1000만원이 수여되며, 대상·금상·은상 수상 5개 팀에는 해외 우수 과학기관 탐방 기회도 제공된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대학생 앰버서더 모집

내달 8일까지… 7개월간 활동

SK하이닉스가 콘텐츠 제작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앰버서더를 찾는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월 8일까지 ‘2026 대학생 앰버서더’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지원은 앰버서더 모집 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대학생 앰버서더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며,

대학생의 시선에서 SK하이닉스의 기업 문화와 직무, 기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기업 스토리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대학생 앰버서더는 단순한 홍보 활동을 넘어, 미래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2026년에도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시각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SK하이닉스의 가치를 더욱 폭넓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중국본부에서 열린 한국엔컴퍼니그룹 ‘프로액티브 콘서트’ 현장.

한국엔컴퍼니, 해외거점 소통 강화

중국서 ‘프로액티브 콘서트’ 개최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중국 본부 임직원들과 함께 ‘프로액티브 콘서트’를 열어 글로벌 기업문화 프로그램의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한국타이어 중국본부에서 임직원 2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프로액티브 콘서트’를 진행했다.

프로액티브 콘서트는 조현범 회장의 경영철학 ‘프로액티브 컬처’에 따른 타운홀 미팅 형식의 사내 소통 프로젝트다. 지난해부터 지주사 한국엔컴퍼니를 포함해 한온시스템, 한국네트웍스, 한국엔지니어링웍스, 모델솔루

션 등 전 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프로액티브 콘서트는 지난해 10월 유럽본부와 북미 사업장에 이어 중국에서 개최됐고, 이에 따라 한국엔컴퍼니그룹은 해외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소통 프로그램 1.0’을 마쳤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올해부터 글로벌 사업장의 연구소, 공장, 해외 법인에서도 프로액티브 콘서트를 개최해 현장 임직원들과의 소통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오윤정 프로액티브컬처팀장은 “콘서트 결과는 그룹 차원의 실행 성과 아카이브로 통합 관리될 예정”이라며 “임직원 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내부 소통의 장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전, ‘적극행정 모범사례’ 국무총리 표창

감사실, AI·IT 기반 업무혁신 성과

한국전력은 감사실이 최근 AI·IT 기반 감사업무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원이 선정한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전 감사실은 AI·IT 신기술 기반 감사업무 효율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왔다.

감사실은 실제로 파일 메타데이터 분석, 비적정 설계 감지, 이미지 재사용 감지 등 다수의 AI 기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감사자료 수집·분석

체계를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 감사자료의 유효성과 정확성을 점검해 분석 정확도를 크게 높였으며, 비적정 설계 의심 건 등을 자동 추출해 감사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특히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감사에 활용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함으로써 약 2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최신 기술을 감사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기반한 감사로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정부합동민원센터 사회민원상담과장 임한나

부음

▲김정자 씨 별세, 송훈상(전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실장)·현상·봉숙·명숙·문숙

(경남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장)씨 모친상 = 18일 오후 4시 48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1일. (02)3410-6902

▲정금순씨 별세, 송창대(우석대 산학협력단 토양오염분석센터장)씨 모친상 = 19일 오전 5시 20분, 전주고려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21일. 063-242-9944

고용정보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은 ESG 경영전략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년 연속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을 준수해 작성됐으며, 한국ESG경영개발원의 제3자 검증을 통해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장수 원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윤리·준법 경영과 정보보호 강화, 친환경 경·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국민·기업·지역사회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